시사



# 티에스팜, 보온성-투광율 높인 유리온실 국산화 앞장

온라인 뉴스팀 기자 입력 : 2017-03-02 11:05 | 수정 : 2017-03-02 11:05



유리온실은 광투과율이 높은 유리 등의 피복재를 사용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고, 복합환경제어 설비를 통해 작물 및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현한 설비다.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 등 채소 및 과일류뿐 아니라 백합, 장미, 난 등의 화훼작물에 적합한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향상된 기술의 원예시설을 통해 연중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작물 생산이 가능하고, 최신의 정밀 제어 시스템을 통해 생산량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공을 진행해온 ㈜티에스팜은 현장의 환경 및 지형, 내-외적인 조건을 철저하게 분석해 반영한 맞춤형 온실을 공급하고 있다.

티에스팜 이상현 대표는 “온실은 완벽한 기초의 시공에서부터 시작한다. 완벽한 기초는 후행공정으로 이어지는 철골, 알루미늄 피복 공사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 이는 온실의 기밀을 유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온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중의 기본인데 이를 위해 열성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위해 냉난방 설비 또는 커텐시설 및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의 주요자재는 최상품으로만 엄선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도편차 없는 온실 등 실내의 환경이 어느 곳에서나 균일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자재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폴리에스테 필름과 실을 이용한 알루미늄 보온스크린을 이용해 빛의 투과를 최대로 하고, 보온기

철골 분체도장, 산광/보온스크린, 흰색의 바닥재 등 온실 내에 가능한 많은 보광요소를 적용했다. 이로써 직사광선 유입을 막고 은은하게 빛을 분산시켜 작물이 타지 않고 고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낙과 방지, 착과 및 착색에도 유리하다.

회사는 ICT스마트팜시스템의 구축 및 실용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회사 측은 “우리 회사는 전문 설계 인력 4~5명이 직접 설계도면을 제작할 수 있고, 골조 및 자재 등의 70%를 국산화시켜 충분히 국산 기술로만으로도 유리온실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의 증가와 자원의 고갈로 2050년 예상되는 식량 및 물의 파동을 대비하기 위해 회사는 폐양액 회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살균시스템을 활용한 폐양액 회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유지비를 절감하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해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 : 2017-03-02 11:05 | 수정 : 2017-03-02 11:05

SBS CNBC
온라인 뉴스팀 기자
다른기사 헬스트레이너 이안, "다이어터의 몸 균형 체크해 맞…

저작권자 SBS플러스 & SBS콘텐츠허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 위로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인기기사

- 연초부터 '공격 경영' SK…손놓은 삼성·현대차
- 소비자물가 2% 급등…4년 3개월 만에 최대
- 트럼프 '환율 전쟁' 포문…갈피 못 잡는 한국